

국내 최초 UHD HDR로 전파를 타다!

300회 특집 SBS '정글의 법칙 in 남극'



SBS '정글의 법칙'이 이번에는 혹한의 추위 속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을 다녀왔다. 매서운 추위로 인간이 살기 힘든 극한의 환경에서 남극의 경이로운 대자연 탐험에 도전했다. 300회 특집으로 촬영된 이번 36기 탐험대는 국민족장 김병만과 김영광, 전해빈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힘겹게 6박 7일간 남극의 자연을 탐험했다. 극한의 오지이다 보니 '정글의 법칙'이 방송된 7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출연진에게 식량이 제공되었는데, 남극조약 환경의정서에 의거 남극에서는 토착 동식물군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42시간의 긴 여정이 걸리고, 기상악화가 되면 가기도 힘들다는 남극은 어떤 곳일까? 남극대륙(Antarctica)은 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연평균 기온이 영하 34도에 이를 정도로 극한의 기온과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이며, 면적은 약 1,400만 km², 사람이 살지 않으며, 여름에 약 4천여 명, 겨울에 약 천여 명의 사람들만이 대륙에 산재한 각 연구기지에서 남극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다. 여름이 시작되는 11월부터 4개월가량만 여행이 가능한데,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극에는 펭귄, 물개, 해표, 흑등고래, 지의류의 식물, 여러 조류 등 혹한의 추위에 적응한 동식물만이 남아 거대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정글의 법칙 in 남극'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극한의 장소인 남극대륙을 대한민국 예능 최초로 다녀왔다는 점과 UHD 방송시



대를 맞이하여, 지상파 예능 최초의 UHD 제작 프로그램이며, 국내 최초로 4K UHD HDR(초고화질 고음영비)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UHD 영상인 HDR 기술을 적용하여 남극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으며, 대자연의 선명함과 현장감, 생생한 색감을 재현했다. 현실감을 극대화한 눈부신 영상미에 목마른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HDR 영상을 드디어 지상파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김진호

SBS 정글의 법칙 PD

Interview

기존에 남극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는 여럿 있었으나 예능에서는 최초인데, 남극까지 가게 된 사연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존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남극을 다루었고, 근래에는 방송을 통해 남극을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에서도 남극 탐험을 하려 했으나 기상이나 다른 조건 등으로 못 갔었을 만큼 남극 촬영은 모든 PD의 꿈이 아닌가 해요. 2011년 '정글의 법칙'이 시작할 때부터 남극은 하나의 목표였고, 2012년도, 14년도, 16년도 지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세종기지하고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간 루트는 약간 다른데, 세종기지는 남극대륙이 아닌 킹조지섬에 있어요. 이번 남극대륙을 간 루트는 우연히 알게 되어, 외교부 허가와 비행기 표를 구해 다행히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이번 남극편을 실행하기 위해 기획 단계의 진행 과정은 어떠했나요?

이번 탐험의 경우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규모로 갈 수 없었어요. 기존대비 몇 배의 제작비가 필요했기에 총 10명(출연진 3명, PD 2명, 카메라 촬영 2명, 카메라 보조 1명, 헬리캠 1명, 오디오 1명)만 갈 수 있었어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기에 기본적인 조건들도 알고 있었죠. 보호구역이 있어 사냥이 불가한 점이나 그 밖에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는 것들요. 태양열로 밥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정글의 법칙'은 기존 여러 특집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관련 주제를 다루었어요. 저희가 제작을 하며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면, 자연도 우리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최소한만 자연에서 얻는다."인데, '정글의 법칙' 시작부터 철학이자 원칙이에요. 코스타리카 특집이나 김상중 씨가 나온 편에선 불 없이 탄소배출 안 하기, 그밖에 멸종위기 동물인 오랑우탄을 찾아간 적도 있고요. 이런 중심에 있는 곳이 남극이다 보니 저희도 '환경 이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 보니 최근에 탐험가들이 태양열과 풍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여 저희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이유로 최소한의 제작인력이 간 것도 있고요. 저희만의 방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런 덕뿐인지 기획한 것의 120% 이상을 채울 수 있었어요. (웃음)



실제 남극의 추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남극은 오존층이 매우 얇아 빛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가 갔던 지난 1월 낮에 바람이 없을 때는 영하 10도~20 사이가 되고요, 밤에는 영하 20도~30도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남극점에서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추위를 겪었죠. 추운 게 아니라 아프더라고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추위로 방한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옷도 몇 겹을 껴 있어야 원활히 움직이고, 추위를 견딜 수 있었어요. 아웃도어 업체의 협찬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고산이라 숨이 차고, 백야 현상 등 촬영하는 조건은 매우 어려웠어요.



남극의 극한의 추위에서 원활한 촬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이번에 자막을 쓰면서 명언을 찾았는데,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노르웨이의 극지탐험가인 로알 아문센이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 부른다. 실패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 부른다.”라는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저희도 작년 추석 때부터 본격적으로 4개월을 준비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연히 의상에도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촬영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요. 방한화와 카메라 방한 커버도 국내에 없어 주문 제작을 했고, 추위에는 카메라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다 보니 배터리마다 핫팩을 붙여 어떻게라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자 했어요. 이밖에 극지연구소 미팅을 하며 조



힘든 여정 속에 남극점을 찾은 김병만 족장과 제작진

언도 듣고, 칠레 현장에서 남극에 가기 전 교육을 받았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한 덕에 현장에서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2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기상 조건도 좋아 큰 무리 없이 제작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준비 속에도 생각지 못하게 트라이포드가 추위에 부러지고, 남극점에서는 렌즈도 얼어 쪼인, 줌아웃이 안 되기도 했죠. (웃음) 촬영장 비로는 소니의 UHD 카메라 두 대와 고프로, 캐논 5D Mark IV 등을 가져가 4K 촬영을 했고, 헬리캠은 인스파이어와 팬텀을 가져갔고요. 남극의 극심한 바람에 드론 1대가 추락했는데, 산에 떨어져 현지 스태프들이 주워와 다행히도 메모리는 살릴 수가 있었어요.

힘든 촬영 속에서도 행복감을 준 시간은?

사실 저희가 출발했을 때 남극대륙은 갈 수 있었지만 남극점까지는 불확실했어요. 남극대륙에서 남극점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비행기 좌석과 기상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늘이 도와서 그런건지 마침 모든 조건이 맞아 극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또, 남극을 준비하면서 저와 김병만 씨 등이 탐험가 '로버트 스완' 씨의 책을 읽었는데, 마침 남극점에서 이 분을 만났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즉석에서 이 분을 섭외하여 환경에 대한 메시지와 경각심을 표현하는데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였어요. 이글루를 제작하는 장면에서도 김병만 씨의 굳은 의지로 14시간이 걸린 상황에서도 마침내 완성을 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고, 또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점차 UHD 방송의 편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UHD 제작에 대한 생각으로는?

모든 PD분이 더 나은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UHD로 촬영을 해봤는데, 기대한 것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촬영, 기술 쪽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도 있고, 이번 특집의 경우도 카메라 대수가 적어 UHD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SD 방송이었는데, 현재 UHD의 화질이라 이런 기술의 발전에 저희 제작진도 맞춰 가야 할 것 같네요. 다른 PD분들께도 UHD로 제작해보실 것을 권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UHD 정규방송이 된다면 기술 쪽 분들의 도움을 더 받아 저희 '정글의 법칙'이 제일 먼저 도전해보고 싶고요.



SONY PXW-Z450 4K 카메라와 Fujinon 4K 렌즈



SONY PMW-F55 4K 카메라와 캐논 시네마 렌즈



추위 속에서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 음향 스태프

서는 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또, 카메라뿐만 아니라 NLE 편집 프로그램도 4K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배웠고, 자막기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힘겹지만 이런 과정들도 제대로 된 UHD 방송이 만들어지는데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덕에 촬영 결과를 돌아와서 확인하니 눈이 호강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더욱 UHDTV가 보급되어 제가 보고 있는 영상미를 시청자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라구요.

UHD HDR로 제작하기까지 준비 과정과 실제 촬영 및 후반 작업에서의 변화로는?

가기 전부터 전체 일정 등을 기술팀과 공유하고, 촬영감독님과 상의해서 S-log를 사용하기로 정했죠. 카메라 테스트도 해보고, 스케줄, 용량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한, UHD 촬영이다 보니 그 덕에 색보정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보통 방영되기 3~4일 전에 편집이 끝난 마스터본을 후반작업쪽으로 전해드리는데, 이번에는 2주 전에 보내드렸으니 그만큼 시간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편집본을 전해드리는 건,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그렇다면 촬영본을 편집하고, 후반작업 등을 거쳐 정글의 법칙 한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편집에 2~3주가 걸리고, 색보정, 자막, 오디오 등의 후반작업이 2주 정도 소요되어 촬영본을 방송 송출본으로 만들기까지는 약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편집하는 도중에 새로운 특집을 촬영하러 가서 일정이 크로스가 되는 일이 늘상이죠.

예능 프로그램 PD로서 보람은? '정글의 법칙' 시청자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볼 때 제일 행복하죠. 아이들이 저희 정글의 법칙을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부모님들도 보시니까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교육적이고,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재미를 추구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무사히 제작하고, 매번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때가 행복이고, 보람이 아닌가 해요. 앞으로도 '정글의 법칙'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